

「素問·寶命全形論」의 五行相克에 對한 小考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방정균*

對於「素問·寶命全形論」의 五行相克之小考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陰陽五行學說是韓醫理論的根幹, 所以其意義最重要, 也有許多的含意. 特別是五行由不斷的相生相克之關係, 並可以循環. 但在「黃帝內經」等醫書中, 有關於五行的內容, 許多醫家或不了解其文的含意, 只用五行相生相克的關係而解釋. 對於「素問·寶命全形論」的五行相克的內容, 許多醫家也只以五行相克的關係而釋之, 所以“土得木而達”的意難以解明, 而且不可以維持一貫的解釋. 所以我考察了此篇對於五行相克之關係, 而得了如下結論. 其一是, 本篇的五行相克之意, 不只有克害的意思, 還有要用相克之氣去抑制其亢盛的氣, 這樣才可以維持五行相互的均衡之意. 其二是, “土得木而達”的達字之意, 不要拘於字意而釋之, 若以達字之意義解釋本文, 失一貫的解釋而不可以發明本文的意義. 其三是, “土得木而達”的意義, 是土氣亢盛而過于凝聚的狀態, 用木的疏泄效能去疏通土氣. 如此說明法, 並可以說明別的四行之相克關係.

Key Words : 「素問·寶命全形論」, 五行相克, 土得木而達, 疏通

본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I. 序論

陰陽·五行 학설은 한의학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五行은 相生·相克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순환하게 된다. 그러나 「黃帝內經」을 비롯한 한의학醫書에 五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 종종 그 문장 자체의 의미성을 살펴보지 못한 채 五行의 相生·相克 관계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素問·寶命全形論」에 나타난 五行의 相克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많은 醫家들이 단순한 五行의 相克관계로만 본 문장을 해석하여 “土得木而達”의 의미를 해석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 결과

되었다. 이에 역대 醫家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본 문장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 本論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五行의 相克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많은 醫家들은 本篇에서 제시한 五行의 相克관계가 鍼法을 비롯한 治療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¹⁾, 本篇에서 제시한 五行의 相克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신저자: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33) 730-0666, bjdcw@mail.sangji.ac.kr

1) 王冰을 비롯한 馬蒔·吳崑·張介賓 등은 이 구절의 五行相克 관계를 針法의 이론적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木得金而伐·火得水而滅·土得木而達·金得火而缺·水得土而絕·萬物盡然·不可勝竭(나무는 쇠를 만나면 베어지고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고 흙은 나무를 만나면 풀리고 쇠는 불을 만나면 이지러지고 물은 흙을 만나면 끓기니 만물이 다 그와 같아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²⁾

上記한 문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土得木而達”의 구절이다. 丹波元簡은 達의 의미가 伐·滅·缺·絶과 뜻이 서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醫家들이 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의심스럽다고 하였고³⁾, 胡天雄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注家들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 이상과 같이 “達”字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함으로 인해, 본 문장에 대한 해석법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역대 醫家들의 본 문장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역대 醫家들의 해석

본 문장과 관련된 역대 醫家들의 해석을 정리해보면 첫째, 본 문장의 五行相克 관계를 鍼法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로 인식하는 것이니 王冰⁵⁾·馬蒔⁶⁾·吳崑⁷⁾·張介賓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醫家들은

-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출판부. p. 97.
- 3)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57. “簡按達, 王訓通, 然與伐滅缺絶, 義相乖, 諸家不解, 可疑.”
- 4)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 186. “天雄按, 此達字歷來爲注家最感頭痛的問題, 故有採取回避態度者.”
- 5)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59. “請說用鍼之意. 達, 通也. 言物類雖不可竭盡而數, 要之皆如五行之氣, 而有勝負之性分爾.”
- 6)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90. “此言欲用針者有五法, 而其法爲甚神也. 伯言用針之法有五, 其妙發乎五行. 正以五行者, 木伐于金, 火滅于水, 土達于木, 金缺于火, 水絕于土, 萬物皆具五行, 其勝負之理盡然, 非止一物而已.”
- 7)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126. “言萬物莫不各有勝克之理, 不可勝竭而數, 要之可以類推也.”
- 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 647.

“土得木而達”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王冰만이 達을 通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王冰처럼 達을 通의 의미로 볼 경우, 丹波元簡이 제시한 바와 같이 伐·滅·缺·絶의 의미와 뜻이 서로 어긋나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둘째, 張志聰은 土를 제외한 木火金水의 경우는 本氣를 勝하는 기운에 의해 害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土의 경우는 土를 勝하는 기운에 의해 制化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⁹⁾. 즉, 土의 경우는 土害承制의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土害承制란 어떤 기운이 亢盛하게 되면 亢盛한 기운이 克하는 기운의 자식이 일어나 도리어 亢盛한 기운을 抑制하여, 자연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자율조종의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張志聰의 주장은 다른 4行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土의 경우만 制化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 一貫성이 결여된다. 張志聰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達”이라는 글자의 의미에 치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高士宗은 張志聰과 마찬가지로 土를 제외한 나머지는 克制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土의 경우는 처음에는 木이 旺盛하여 土를 억제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木의 자식인 火가 旺盛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火가 土를 生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高士宗은 土를 제외한 나머지 4行的 相克 관계를 制化의 의미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 듯 보이지

“天地陰陽之用, 五行盡之, 萬物雖多, 不能外此五者, 知五行相制之道, 則針法可約而知矣.”

- 9)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 242. “伯言針石之道, 必先定五臟, 備九候, 而後乃存針. 然五臟五行之氣, 有相勝更立, 不可不知. 如木得金則伐, 火得水則滅, 金得火則缺, 水得土則絕, 此所勝之氣而爲賊害也. 如土得木而達, 此得所勝之氣而爲制化也. 萬物之理皆然, 而不可勝竭.”
- 10)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 182-183. “陰陽萬物, 不外五行制化之道. 金能制木, 故木得金而伐; 水能制火, 故火得水而滅; 木能制土, 始焉木王, 既則木之子火亦旺, 火旺生土, 故土得木而達; 火能制金, 故金得火而缺; 土能制水, 故水得土而絕. 萬物皆有制克之道, 故萬物盡然, 制而復生, 無有窮盡, 故不可勝竭. 不可勝竭, 所以申明土得木達之義.”

만, “土得木而達”의 경우가 “制而復生”의 의미를 거듭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 土를 제외한 나머지 4行과 구별하고 있다. 즉, 克의 의미를 制化의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선 醫家들의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土의 경우에만 다르게 설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達의 의미를 소통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姚止庵은 土의 성질이 “厚而頑”하기 때문에 소통시켜 주지 않으면 石田이 되어 萬物을 生長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木과 土의 관계를 土가 弱하면 克하기도 하지만 木이 土를 疏通시켜 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姚止庵의 이러한 주장은 達의 의미를 疏通의 의미로 보아 그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나머지 4行과 더불어 일관된 설명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한편, 朴贊國도 達을 陽氣가 疏通·發散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²⁾.

다섯째, 達의 의미를 伐·滅·缺·絶과 마찬가지로 克을 당하여 害를 입는 의미로 본 경우이다. 丹派元堅은 達을 “奪”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奪을 達로 잘못 쓴 것이라고 하였고¹³⁾, 胡天雄은 “穿透”의 의미로 보았으며¹⁴⁾, 王洪圖는 “達”이 “撻”과 통한다는 전제하에 撻의 의미로 보아 撻·伐·徵討의 의미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⁵⁾.

11)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p. 112. “五行相勝, 此其常也. 乃土獨與衆異者, 土厚而頑, 苟無物焉以通之, 則且爲石田而何以生長夫萬物. 是故乘其弱而克之者木也, 疏其理而通之者亦木也. 土得木而達, 其義精哉!”

12)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集文堂. 2005. p. 497.

13) 丹派元堅. 素問紹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453. “堅按太素經注并難從. 竊謂達當作奪, 聲之誤也.”

14)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 186. “蓋此處達字本無深義. 不過穿透之意, 言土遇木則穿也. 此達爲穿, 則與伐, 滅, 缺, 絶, 意義一致. 與木鬱達之達, 義自有別.”

15)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204. “因此, 若想弄清土得木而達的真正含義, 關鍵確釋達字. 達通撻. 「說文」: 撻, 鄉飲酒, 罰不敬, 撻其背, 從手達聲. 撻爲古代鄉間飲酒時對違反酒令者的一種懲罰方式, 引申爲撻伐, 徵討. 由此可知, 達有撻伐, 徵討之義, 這樣注解方與上下文義相通.”

2. 문제점

이상 본 문장과 관련된 역대 醫家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각 醫家들의 주석 내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문장에 기재된 五行의 相克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즉, 王冰·馬蒔·吳崑·張介賓 등은 본 문장이 五行의 相克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이와 같은 五行의 相克관계가 鍼法의 기본 이론이 된다고 설명하였지만, 본 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相克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土를 제외한 4行의 경우는 相克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土의 경우는 木에 의해 土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張志聰은 木에 의해 制化된다고 하였고, 高士宗은 木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木의 자식인 火의 기운도 왕성해져 결과적으로 “火生土”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姚止庵과 朴贊國은 達을 木에 의해 土의 기운이 疏通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達이라는 글자의 뜻에 매몰되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어째서 土만 유독 克하는 기운에 의해 制化·生·疏通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다른 4行을 설명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일관성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達의 의미를 나머지 4行의 伐·滅·缺·絶의 의미와 동일하게 이해하여 奪·穿透·撻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글자를 잘못 옮겨 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또 글자가 서로 통용된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지만, 본문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한, 본 문장의 五行相克 관계를 害를 끼치는 일방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局限性을 면하기가 어렵다.

3. 논자의 견해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五行은 陰陽과 더불어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는 핵심이론으로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五行의 의미에 있

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순환성이다. 즉, 五行 상호간의 相生이나 相克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속선상에서 상호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五行과 관계되는 문제가 제시될 경우 단순하게 相生·相克의 이론을 기계적으로 대입시켜,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살피지 못하고 지나치는 폐단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본 문장에서 제시된 五行의 相克관계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주석의 경우 위에서 제기한 相克이론의 기계적 대입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본 문장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문장의 相克관계를 단순한 五行의 相克관계로 이해할 경우, 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소홀히 여긴 채 지나쳐 버릴 수 있고, “土得木而達”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五行의 相克이론은 극하는 상대방의 기운을 억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억제의 의미는 꼭 상대방을 해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亢盛한 기운을 눌러 줌으로써 五行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특히, 본 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五行 가운데 어떤 기운이 盛하여 질병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 亢盛한 기운을 조절하는 鍼法(治法) 가운데 하나로 五行의 相克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억제를 하여 상대방 기운을 해치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면 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즉, 본 문장의 五行 相克관계는 어떠한 기운이 盛하여 질병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 기운을 억제하는 鍼法(治法)을 통해 五行間的 상호 조절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서 본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木得金而伐”은 木의 기운이 지나치게 亢盛하여 질병상태가 발생할 경우 木을 克할 수 있는 金의 기운을 빌려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무의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하게 되면 오히려 나무 전체에 영양 결핍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가지를 쳐 줌으로써 木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金으로 木을 伐한다는 것이 木의

기운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木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五行의 순환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하 나머지 五行의 관계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만 한다. 둘째, “火得水而滅”의 경우는 火의 기운이 지나치게 亢盛하게 되면 炎上의 성질에 의해 氣가 上逆하고 陽氣가 지나치게 發散함으로써 질병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水氣의 힘을 빌려 上逆한 氣를 끌어 내리고 發散하는 陽氣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정상적인 火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土得木而達”의 경우는 土의 성질이 뭉치는 속성이 있는데 그 기운이 지나치게 亢盛하면 氣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 질병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木의 疎泄하는 힘을 빌리게 되면 凝聚된 土의 기운이 疏通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金得火而缺”은 金의 기운이 지나치게 亢盛할 경우 수렴작용이 지나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火의 기운을 빌려 견고하게 굳어버린 것을 부드럽게 풀어 줌으로써 金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水得土而絕”은 水의 기운이 지나쳐 범람하게 되면 土의 기운을 빌려 범람한 물질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홍수에 대비하여 제방을 쌓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니, 絶의 의미는 水氣 자체를 끊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범람한 水를 막아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장에서 제시된 五行의 相克관계는 克하는 기운을 빌려 지나치게 亢盛한 기운을 억제함으로써 五行이 각기 정상적인 기운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질병을 치유함과 동시에 五行의 정상적인 순환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伐·滅·達·缺·絶의 글자 의미에 얽매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III. 結論

『素問·寶命全形論』에 나타난 五行의 相克관계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문장에서 제시된 五行의 相克관계는 상대방의 기운을 克하여 害를 입히는 일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 亢盛하여 질병상태가 발생할 경우 亢盛한 기운을 눌러 억제함으로써 五行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론을 설명한 것이다. 즉, 五行의 相克관계가 鍼法을 위시한 한의학 치료법의 이론적 근거가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2. 많은 醫家들이 “土得木而達”을 “達”字的 의미에 매몰되어 전체 문장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잃고 있는데, 伐·滅·達·缺·絶의 글자 의미에 얽매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법이 될 수 없다.

3. “土得木而達”은 凝聚하기 쉬운 속성을 가진 土의 기운이 亢盛할 경우 疏泄의 효능을 가지는 木을 이용하여 凝聚된 土의 기운을 疏通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법은 나머지 4行에도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한 기운이 亢盛하여 질병 상태를 야기할 경우 그 기운을 克할 수 있는 기운을 이용하여 억제해 줌으로써 정상상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五行의 순환관계를 회복 시켜 주는 것이다.

京出版社. 1999. p. 204.

7.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90.
8.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59.
9.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 186.
10. 丹派元堅. 素問紹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453.
11.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57.
12.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 647.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출판부. p. 97.

IV. 參考文獻

<단행본>

1.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2.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集文堂. 2005. p. 497.
3.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 242.
4.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 182-183.
5.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126.
6.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